

읽히려고도 읽으려고도 않는다

이름뿐인 중고생 추천도서...독서지도 곁돌아



추천·권장도서로 표현되는 '책을 읽히려는 노력'이 학생들의 '책을 읽으려는 욕구'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독서지도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독서실태를 변화시키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중고교생 독서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독서지도와 독서실태간의 괴리 심해

몇해 전 중고생 권장도서의 하나로 「素女經」이 추천된 사실이 신문지상에 공개돼 많은 이들의 실소를 자아낸 일이 있었다. 그간 우리나라 문교행정과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독서지도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드러낸 단적인 증거라 할 만한 일은,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요즘도 여전히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소녀경 추천은 지난날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잠복된 현재진행형의 사건일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한편으로 오늘날의 중고생 독서실태를 가늠하는 데 유효한 상징적 사건이 되기도 한다.

즉, 교사나 학교, 문교행정의 책을 읽히려는 노력이 얼마나 진지하게 수행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관철되고 있는냐고 하는 점이다. 공식·비공식의 각종 추천도서, 권장도서, 필독도서 목록은 그같은 노력의 진지성과 실효성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아울러, 교사나 학교의 책을 읽히려는 노력에 학생들이 얼마나 부응하며 배반하는지도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책을 읽고 있으며 읽고 싶어 하는지와 관계되는 문제로서 '독서지도'와 '독

서실태'간의整合과 괴리의 정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추천도서'에도 상업적 이해타산 개입

현실적으로 중고생들에게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정밀한 체계의 필독도서 목록은 아직 없다. 시·도 교육위원회 등에서 관내 각급학교에 그때그때 공문형식으로 추천도서를 공지하거나 일부 교원단체에서도 이 방면의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신뢰도가 공인된 도서목록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필독도서 선정을 통한 독서지도는 교사 개인의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중 이른바 '교육위원회 추천도서'는 학생들에게 양서를 읽히려는 애초의 의도가 상당부분 퇴색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도교위 추천도서의 경우, 그 목록구성의 즉흥성이나 판본 선택의 무분별함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해진다.

M출판사 노모 사장은 매년 뜻을 같이하는 동창들과 힘을 합쳐 지방의 모교에 일정량의 도서를 기증해왔다. 그런데 최근 학교측으로부터 이왕 보내줄 책이라면 도교위 추천도서 중에서 골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 목록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에 의하면, 약 40종에 달하는 도교위 추천도서 중 "미등록출판사에서 발행돼 납본도 안된 책, 편·저자가 들도보도 못한 무슨 연구회나 협회로 표시된 책"들이 거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추천'행위 자체에 어떤 상업적 이해타산이 개입됐으리라는 혐의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려는 추천의 의의가 출판업자의 마케팅(혹은 로비활동)에 의해 굴절됨으로써 그나마의 추천도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들어 교육민주화 열기를 타고 결성된 교원단체들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도서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이들 단체가 현재로서는 일종의 임의단체로 취급돼, 거기서 제시된 도서목록이 어떤 공적인 경로를 통해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해당 단체에 가입한 교사 개개인이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그 도서목록을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목록 자체에 내재한 어떤 편향성의 조짐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서울지역교사협의회가 발행하는 「교사신문」 제4호(87.12.12)에 게재된 권장도서목록이 좋은 보기가 된다. 그에 따르면, 문학의 경우 40여종의 권장도서 가운데 한용운(「님의 침묵」), 심훈(「그날이 오면」), 윤동주(「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육사(「이육사전집」), 염상섭(「삼대」), 채만식(「태평천하」), 안수길(「북간도」)을 제외하면 모두가 70~80년대의 작품들로 채워진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현직 고교교사이기도 한 작가 조대현씨는 "문학사가 문학서 독서의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아예 무시한 독서프로그램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하며 "오래 세월을 건디며 살아남은 고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한다.

책읽기 유도하는 교과교육 돼야

추천도서로 대변되는 '책을 읽히려는 노력'에 대해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해서는 그들의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실증적으로 조사되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다소 묵은 자료이긴 하

지만, 교육무크 「교육현장」 제1집(1985)에 실린 '고교생의 자기발견을 위한 독서실태조사'가 몇가지 단서를 제공해준다.

전국 각지의 인문계 및 실업계 고교생 2천명을 대상으로 총 46항의 설문을 통해 고교생 독서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이 조사에 의하면, 책의 선택동기에 있어 '선생님의 소개'라는 대답이 가장 적은 것(6.9%)으로 나타나 추천도서나 독서지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도 한달에 평균 몇권의 책을 읽느냐는 질문에 1권 이하가 78.9%로 가장 많고, 월평균 도서구입비도 1000원 미만이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용돈 중 도서구입비 비율 역시 10% 미만이 50.5%로 가장 많다. 그렇다고 학교도서관의 이용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전혀 이용 안함이 65.3%, 백과사전 뒤져보는 정도가 20.8%로 86.1%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결국, 독서실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독서지도는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물론 학교나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흔히 거론되듯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짜여진 교육제도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독서환경의 열악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사회로 돌릴 수 있을만큼 교육현장에서의 노력이 충실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학교가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따로 남는다.

예컨대, 학교도서관의 경우 전문사서의 확보가 어렵다면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라도 폭넓게 반영되는 도서구입이 이루어져 학교도서관의 장서가 곧 추천·권장도서로 구성되는 운영이 필요하다. 서무과장 등 교육행정의 담당자에 의해 도서관 장서가 결정, 구입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교과과정 자체가 자연스레 책읽기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편돼야 하리라는 지적인데, 이는 대입 논술고사와 곧 부활될 철학교육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철주 기자